

■ 르포 / 4·3 유해발굴 현장, 표선면 가시리 '우구리동산'을 가다

“흙이 된 소년... 참혹함에 몸서리 쳐져”

가족 추정 유해 3구 발굴
“토굴등에 피신했던 2가족
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듯”
70여년 전 억울한 죽임 당한
중산간마을의 비극 보여줘

“오늘(31일) 유해 발굴 현장보고회가 있어서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유해 3구가 73년 만에 발견됐는데, 모두 두상(머리)만 남아 있어 개인적으로 당시 참혹하게 학살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지. 11살이던 어린 소년은 벌써 흙이 되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듣기로 4구가 묻혔는데 현재 3구만 확인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유해 발굴 장소에서 만난 제보자 강군섭(79·가시리)씨는 “일가족 7명이 몰살당한 가시리 마을 출신 강원길(당시 48세)씨와 다른 가족인 김계화(당시 32·여)씨 및 그의 아들 강홍구(당시 11)군,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1구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들 희생자들은 1948년 12월 21일 가시리 남쪽 ‘우구리동산’ 토굴과 움막에 피신 중이던 두 가족의 시신으로, 토벌대에 의해 현장에서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4·3 당시의 참혹상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며 “이제라도 자신의 모시는 할아버지(강원길)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뤄지고 유족으로 확인된다면, 가족모지에 옮겨 제대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31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 당시 초도화적적으로 참상을 겪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31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4·3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유해 발굴 현장보고회를 개최, 희생자를 추모하는 유해 3구에 대한 추도제를 올렸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초도화적전이 본격화된 1948년 11월 15일 군경토벌대는 가시리마을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총격을 가했다. 이날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30여명이 희생됐고, 토벌대의 방화에 의해 가옥 250여 채가 불에 탔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유해 발굴은 그 의미가 크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암매장된 중산간 마을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4·3 7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주사회에 또 다른 아픔과 함께 상생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특히 유해 발굴은 최근 3~4년간 발굴을 맡아 4·3평화재단과 연구소 등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한 역할이 있어 가능했다. 발굴 현장인 과수원 주인이 무연분묘로 신청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지만 참혹했던 현장을 기억하고 증언하며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앞서 도와 4·3평화재단 및 유족회는 지난 3월 22일 유해발굴 개도제를 진행했고 이어 24~26일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이 시굴 조사해 유해를 발견했다. 아울러 서울대 법의학연구소가 유해 발굴에 따른 시료 채취와 유전자 감식을 맡아 신원 확인을 벌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발굴된 유해를 조만간 제주4·3평화공원 봉

안관에 안치하고, 향후 유족이 확인되고 유족이 요청할 경우 발굴 유해를 인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8억7000만원을 확보해 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와 유전자 감식, 그리고 유가족 채혈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전자 감식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맡아 진행한다. 특히 종전 친부모·자식 관계만 판별 가능했던 STR방식에서, 방제 6촌까지 판별 가능한 SNP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도와 4·3평화재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해 405구를 발굴했다. 가운데 133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272구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을 확인 중이다. 백금탁·강다혜기자

코로나19 최근 이틀간 4명 신규 확진 제주공항 발열감지 과정서 확진자 잇따라 발견

31일 기준 627명 누적확진

제주지역에서 이틀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특히 입·출도 도중 공항 발열 감지 과정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31일 각각 2명씩 총 4명(제주 624~627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27명이다.

624번 확진자는 제주국제공항 출발장 발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도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624번은 지난 8~23일 수도권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30일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 출도하던 중 제주국제공항 발열 검사에서 발열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24번은 지난 27일부터 발열과 몸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625번 확진자는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2일 제주로 왔다. 제주에 체류하던 중 지난 24일 경기

도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진행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 시설 격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626번 확진자는 경상남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3일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 626번은 제주에서 접촉이 이뤄진 지인이 지난 30일 경상남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626번 확진자가 입도 이후인 지난 23일부터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27번은 입도 과정에서 발열자로 분류돼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627번 확진자는 지난 30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입도했다.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열이 감지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 도교육청, 202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최근 2년 봉사활동 점수 모두 만점 처리

내신성적 산출일 12월 6일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최근 2년간의 봉사활동 점수가 시수와 관계없이 모두 만점 처리된다. 교과성적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기본적으로 1학년 10%, 2학년 30%, 3학년 6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과 전형일정 등이 담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공고했다.

내용을 보면 비교과성적 중 봉사활동 점수 산출시 2020학년도 2학년, 2021학년도 3학년의 봉사활동은 시수에 관계없이 모두 만점(6점)으로 처리된다.

고입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기·후기 모집 고등학교 나눠 선발된다. 전기 학교는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일반고 특수목적학과(남녕고 체육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며, 후기 학교는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 ▷특수목적고(제주외국어고)다.

또 내신성적은 12월 6일 기준으로 산출되며,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명칭이 소질적성전형으로 바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신 100% 전형이 안착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제주시읍면지역과 서귀포시를 면동 해당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고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진로 맞춤형 진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됐으며, 세부계획은 9월 초에 발표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9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 최고 2월 기준 0.18%로 전국평균보다 0.11%p 높아

제주지역의 9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후 62세(2021년 기준)가 된 때부터 평생동안 매월 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도

민 5만5799명 중 90세 이상 비중이 0.18%(99명)로 전국평균(0.07%) 대비 0.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다음으로 전남 0.17%, 충남 0.13%, 경북과 전북 각 0.12%, 경남 0.11% 순이다.

도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령대는 69세 이하가 51.8%(2만8912명), 70

대 36.3%(2만255명), 80대 11.7%(6533명), 90세 이상 0.18%이다.

또 90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중도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90세 이상 인구 약 34만3460명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0.87%(2980명)다. 이에 비해 90세 이상 도민 5065명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1.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남 1.75%, 경북 1.56%, 경남 1.53%, 충남 1.33%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1대 이장단협의회 출범 축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

회장 고 두 진 <small>(조천읍 와산리장)</small>	부회장 장 봉 길 <small>(제주시 이장단협의회장)</small>	부회장 김 법 수 <small>(서귀포시 이장단협의회장)</small>
감사 최 만 기 <small>(추자면회장)</small>	감사 현 승 민 <small>(남원읍 수암리장)</small>	사무처장 김 두 환 <small>(조천읍 와출리장)</small>

제 주 시 이 장 단 협 의 회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감사	감사	사무국장	한림회장	애월회장	구좌회장	조천회장	한경회장	추사회장	우도회장
<small>(하가리장)</small>	<small>(상가리장)</small>	<small>(금악리장)</small>	<small>(용수리장)</small>	<small>(함대리장)</small>	<small>(평대리장)</small>	<small>(용흥리장)</small>	<small>(귀덕2리장)</small>	<small>(고내리장)</small>	<small>(월정리장)</small>	<small>(대흥1리장)</small>	<small>(두모리장)</small>	<small>(영흥리장)</small>	<small>(서광리장)</small>

서 귀 포 시 이 장 단 협 의 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감사	감사	사무국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small>(신양리장)</small>	<small>(감산리장)</small>	<small>(신봉리장)</small>	<small>(동일2리장)</small>	<small>(남원1리장)</small>	<small>(가시리장)</small>	<small>(보성리장)</small>	<small>(태흥2리장)</small>	<small>(삼양2리장)</small>	<small>(시흥리장)</small>	<small>(신도2리장)</small>	<small>(의곡리장)</small>	<small>(세화2리장)</small>	<small>(상전리장)</small>

●양행정시 협의회원은 당연직 도협의회 운영위원임.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총회를 개최못함을 각 마을 이장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